

남북관계 추진현황

2004. 7.31

통 일 부

목 차

I.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	1
II. 남북관계의 발전	2
1. 남북회담 추진	2
2. 남북 실질 협력관계 구축	4
3.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	8
III.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	10

I.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

- 2002년 10월 북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정부는 핵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발전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.
- 남북장관급회담(8-14차) 등 각종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에 「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」 이행 및 다자회담 호응을 촉구해 왔으며,
 - △ 제13차 장관급회담(2.3-6): “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”
 - △ 제14차 장관급회담(5.4-7): “6자회담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”
- 북한의 6자회담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에서 남북대화 채널의 유용성이 확인되었습니다.
 - △ 리자오싱 외교부장, 다이빙궈 상무부부장 등 중국 외교부 인사의 통일부 방문
 - △ Kelly 미국무부 차관보, 방한(2.2)시 “장관급회담이 6자회담 등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뒷받침”
 - △ 남북장관급회담 종료 후 미·일·중 대사 대상으로 회담결과 브리핑 실시
- 또한, 제3차 6자회담(6.23-26)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“동결 대 상응조치”를 논의하기로 함으로써, 본격적인 협상단계로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 - 조속한 시일 내에 제3차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여 동결범위, 기간 및 검증방법, 상응 조치에 관해 논의하고, 그 결과를 4차회담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
 - 그러나 아직까지는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북한 핵프로그램 존재 여부, 핵동결 및 폐기 범위 등 주요쟁점에 대한 참가국간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
- 앞으로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간 대화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.

II. 남북관계의 발전

1. 남북회담 추진

□ 추진현황

-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, 군사분야의 협력 유도, 북핵문제 해결의 여건조성 등을 목표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☞ 올해 총 25회 회담 개최(7. 31기준)

- ◆ 정치·군사분야 : 9회, 경제분야 : 13회, 적십자·체육 분야 : 3회
- '03년 총 38회 개최(정치·군사 : 13회, 경제 : 17회, 적십자·체육 : 8회)
- 6.15 공동선언 이후 총 121회 개최

□ 추진계획

- 남북장관급회담은 명실상부한 남북관계 중심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
 - △ 남북경협, 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북간 모든 현안을 협의·해결
 - △ 핵문제 해결과정을 고려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의제 개발
 - △ 금년내 「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」를 가동하여 민간급 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
- 군사분야 회담을 점차 확대하여 평화와 협력의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 - △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「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」(6.4)와 그 부속합의서(6.12)의 성실한 이행
 - * 서해상 함정간 상시 통신망 유지, 군사분계선 선전수단의 단계별 제거 등
 - 앞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방안 등을 협의·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경제분야 회담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.
 - △ 「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」를 중심으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
 - △ 남북철도도로 연결, 개성공단 건설, 금강산관광 등 3대 경협사업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남북간 제도 문제 협의·타결
-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 - △ 면회소 건설관련 실무문제 협의 추진
- 남북체육회담은 북경올림픽 단일팀 구성 추진과 남북체육 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.
 - *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(6.23~25, 북경)에서 선수단 호칭, 깃발, 선수단가, 복장 등 5개항 합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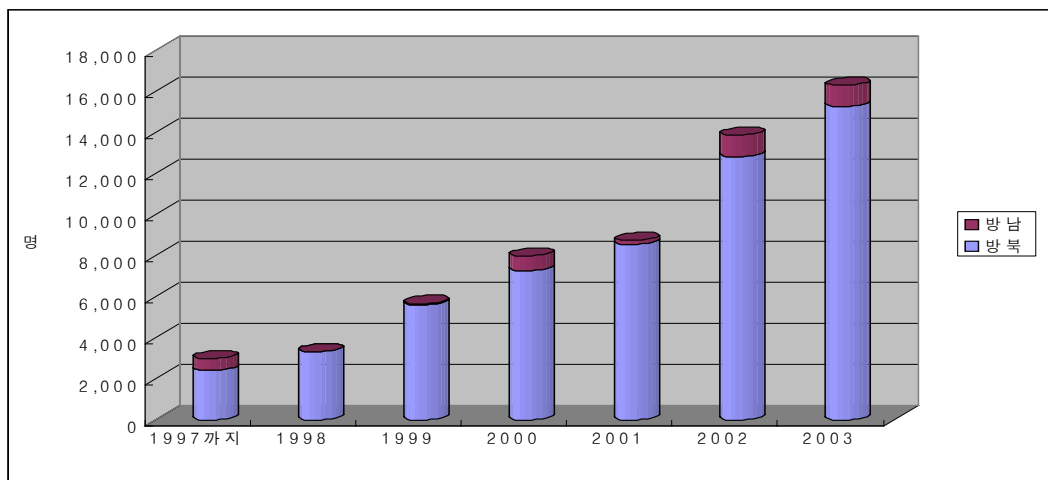
2. 남북 실질 협력관계 구축

① 인적·물적 교류

○ 남북간 '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, 교류와 협력'을 적극 추진하면서 남북간 왕래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.

- 왕래인원 : 7,986명('00)→ 8,742명('01)→ 13,877명('02)→ 16,303명('0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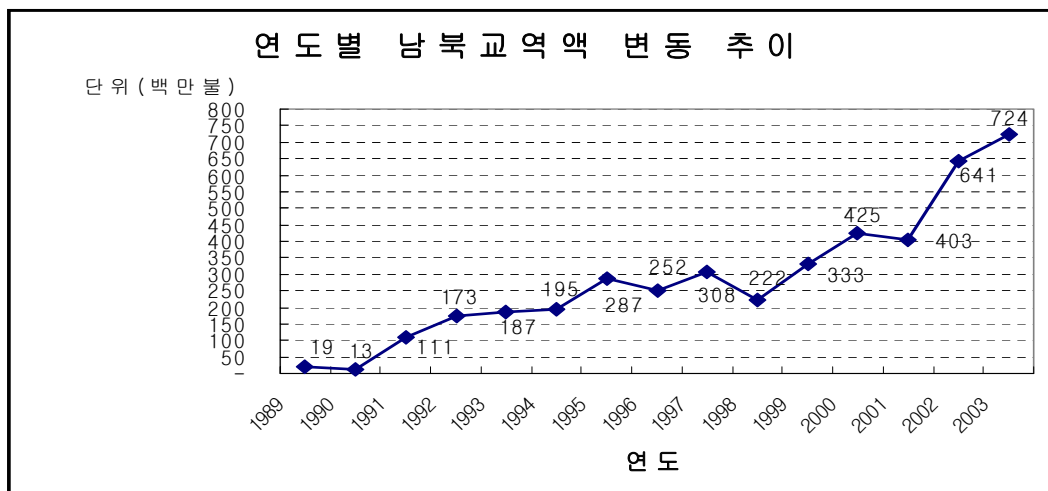
* '04년 상반기중 9,866명 왕래



○ '89년 1,872만불로 시작한 남북교역은 북한 대외교역 규모의 1/4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(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상대국).

- 교역액 : 2.2억불('98)→ 4.3억불('00)→ 6.4억불('02)→ 7.2억불('03)

* '04년 상반기중 교역액은 3.2억불



② 개성공단 개발

□ 추진내용

- 개성시 일대 총 2,000만평(공단 800만평, 배후도시 1,200만평)을 개발할 계획이며, 정부는 우선 1단계 100만평에 대해 지난 2004년 4월 23일 협력사업 승인을 하였습니다.
- 2004년 6월 30일, 시범단지(28,000평)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.
 - 동년 하반기부터 우리기업이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.
 - * 6.5 시범단지에 입주할 15개 업체를 선정, 6.14 계약체결
-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기반시설 건설도 계속 추진하여, 2006년 말에는 본격적으로 기업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
☞ 개성공단 건설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

- △ 통행합의서 체결('04.1.29) 등 제도적 장치마련
- △ 분양가 인하, 안정적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
 - 내부기반시설은 무상지원, 외부기반시설은 장기저리 대출
- △ 통일부 산하에 범정부차원의 「지원 기획단」을 설치, One-Stop 서비스
- △ 손실보조 등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실행, 중소기업 지원 강화
- △ 북측 근로자의 재교육을 위한 노동훈련센터 설치·운영 추진

□ 사업의 의의

-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우리의 자본·기술과 북한의 토지·인력이 결합하는 상생의 남북협력사업입니다.
 - △ 어려운 국내 경제로 한계에 처한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활로 제공
 - * 수도권에 근접(서울 1시간, 평양 2시간)/ 임금 월 57.5불로 연5%미만 임금 인상, 자율적 노무관리/ 연 10-14%의 낮은 세율
 - △ 북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면서 「시장경제의 학습장」으로 기능
- 특히 군사적 대치구역인 「개성-문산 축선」을 남북경제협력 현장으로 개방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게 됩니다.

③ 남북 철도·도로 연결

□ 추진내용

- 2003년 6월 궤도 연결식 이후 남북이 착실히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.

<04. 7. 31 현재>

구 분		우 리 측	북 측
경의선	철 도	○ 공사 완료('02.12.31)	○ 본선 궤도부설 완료, 역내공사
	도 로	○ 공사 완료('03.10.31)	○ 2차 포장 진행중
동해선	철 도	○ 노반공사 중(20%)	○ 본선 궤도부설 완료
	도 로	○ 노반공사 중(85%)	○ 2차 포장공사 완료

△ 남북간 도로는 2004년 10월 동시 개통 추진, 도로 개통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도 마련

△ 철도는 2004년 10월 가능한 구간 시험운행 실시, 2005년 말 개통 추진

□ 사업의 의의

- 남북간 철도·도로 연결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됩니다.
 - 남북간 직교역로가 확보됨으로써 물류비 절감, 수송시간 단축 등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하고,
 - 나아가 대륙횡단철도(TSR, TCR 등)와의 연결을 통해 동북아 물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.
- * 경의선은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하고, 인천공항의 허브(hub)기능을 강화
- * 동해선은 금강산 관광 활성화, 설악산 연계관광을 통해 동해권 발전에 기여

④ 금강산 관광사업

□ 추진내용

-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으나, 2003년 9월 이후 육로관광이 정례화 되면서,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 - △ 2004년 3월부터 관광객이 월 15,000명을 상회
 - △ 당일관광('04.7.3부터) · 1박 2일 관광('04.6.19부터) 실시중
→ 향후 설악권과의 연계관광으로 개발
 - △ 금강산호텔 보수·개장(435명 숙박 가능) 등 사업자 자구노력 지속 추진
- 북측도 2002년 11월에 「금강산관광지구법」을 제정하고, 2003년 10월에는 관광특구 경계를 확정(600만평)한 데 이어, 현재까지 8개 하위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.
 - 우리측 사업자는 2003년 7월부터 세계관광기구(WTO) 등 전문기관과 함께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,
 -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북측과 협의한 후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

□ 사업의 의의

- 금강산관광사업은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이나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튼 평화적 성격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 - 통일의 산교육장으로서 남북간의 문화적 접합면의 역할을 담당하며, 남북 「사회문화공동체」 형성의 실험실로 기능할 것입니다.

3.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

①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

□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·제도화 추진

- 우리측은 이산가족 고령화 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,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·정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
 - * 2004년 6월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총 101,130명
 - 생사·주소확인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, 서신교환→ 상봉→ 재결합 구도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정상회담이후 10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상봉(9,977명), 생사주소 확인(23,946명)이 이루어졌습니다.
- 남북자·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습니다.
 - 당국 및 적십자회담 등 각급 대화채널을 통해 북측에 해결을 촉구해 오고 있으며
 - 근본적 문제 해결노력과 병행하여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한 상봉과 생사확인을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.
 - * 10차례 상봉을 통해 남북자 11가족과 국군포로 8가족 상봉

□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추진

- 2003년 11월,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면회소를 우리측이 「전담 건설·전담 운영」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 - * 1,000명 수용 가능한 콘도 형식의 면회 숙박시설로 조성(연건평 6,000평 규모)
 - 측량·지질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설계를 완료하고,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

② 대북지원 현황

- 정부차원에서는 식량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보건·의료분야 등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

△ 비료 지원 : 2004년 6월 23일 20만톤 지원 완료(700억원)

* '01년 20만톤, '02년 30만톤, '03년 30만톤 지원

△ 쌀 지원 : 차관형식으로 제공(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40만톤 지원 합의)

* '00년 30만톤(옥수수 20만톤 별도 지원), '02년 40만톤, '03년 40만톤

-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사업 지원(올해 67만불),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개선사업 지원(올해 100만불)에도 참여하였습니다.

-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정부차원 지원과 상호보완 구도 하에 분야별로 전문성을 고려하면서 추진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.

△ 보건의료·농업개발·취약계층 등 민간단체의 사업 지원(98.7억원)

* 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북지원 추진

☞ 용천 재해 지원

○ 북한은 총 피해규모를 9,300만불로 제시(5.6 국제기구와 회의시)

○ 정부(한적)와 민간단체들은 7월말 현재 총 5,316만불 상당을 지원

* 수송비 제외

- 정부(2,958만불) : 긴급구호품, 복구용 자재·장비, WHO를 통한 지원

- 민간(2,358만불) : 긴급구호품 위주로 지원

Ⅲ.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

1.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

-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.
 -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, 북핵문제 해결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
- 북핵문제 해결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.

2. 「경제」와 「군사」 분야 협력의 균형적 발전

- 남북관계의 분야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.
 - 개성공단 건설 등 3대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남북간 경제교류의 제도화를 통해 상호 의존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 -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정례화, 남북국방장관회담 재개 등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하나둘씩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.

3.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

- 국회보고, 연령별·계층별·직능별로 특화·전문화된 「열린 통일포럼」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화,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.



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의 기반 조성

☐